

칼럼 Column

주제 분야별 국가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



곽 승 진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sjkwak@cnu.ac.kr

2007년 도서관계의 10대 뉴스에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출범과 「도서관법」시행이 상위 순위로 발표되었다. 새 「도서관법」시행은 우리나라 도서관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선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갖추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실용을 강조하는 새정부 출범으로 정부 부처의 통폐합 작업과 각종 위원회의 정비 등으로 도서관계에도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으나 뚝뚝뚝친 수많은 도서관인의 관심과 노력으로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국내의 도서관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립, 조정하고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관장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기획단은 발족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분야의 발전과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연구를 추진하였다. 특히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연구에서는 기존의 공공도서관 중심의 도서관발전계획에서 탈피하여 전문도서관,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모든 관종을 아우르는 정책개발과 발전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전문도서관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등 주제별 전문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과학기술, 의학, 농학 등 주제별 국가도서관 건

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망의 기반 위에 지식정보 인프라인 도서관 협력망 구축이 필수적 과제이다. 따라서 국가도서관 협력망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제 영역별 국가도서관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2008년에 약 11조원이고 민간부분 예산까지 포함하면 수십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지원된 R&D 예산에 대한 연구결과물의 수집, 정리, 유통의 서비스 체계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500만명의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일반인에게는 과학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국가 과학기술력 및 연구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 국립과학기술도서관 건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국가 과학기술도서관 운영 사례는 미국의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독일 국가과학기술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cience and Technology), 프랑스 과학기술정보연구소(INIST : Institut de l'Information) 등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이다.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도서관을 건립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전문적인 과학·기술·공학분야의 정보수집, 정리, 서비스를 통한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강화. 둘째,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대학도서관에서 축적해 온 과학기술정보자원을 국가자원으로 통합적 보존 및 활용. 셋째, 과학기술정보 소외계층(벤처기업, 소규모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 지원으로 국가산업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 넷째, 국내외 과학기술 연구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추진. 다섯째, 국립과학관, 사이언스TV 등과 연계한 과학에 대한 저변 확산으로 사회적 문제인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 등의 개선. 여섯째, 1인 사서가 운영하는 소규모 개별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지원 및 육성 등이다.

선진국의 국립의학도서관 건립 및 운영사례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국립의학도서관(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독일 국립의학도서관(German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영국 국립전자보건도서관(NeLHE: National electronic Library for Health),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일본의 국립생명과학정보센터(가칭)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의학도서관을 건립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의학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공동 활용. 둘째, 의학학술정보에 대한 소외계층인 소규모 개인 개업의사 및 중소병원 의료인에 대한 정보서비스 지원. 셋째, 의학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의학, 약품, 질병, 건강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넷째, 국내외 의학학술정보의 통합 검색시스템 구축 및 관리. 다섯째, 의학정보 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등 장점이 많다.

주제 분야별 국가도서관 건립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향상과 도서관의 균형적 발전 및 과학, 기술, 의학, 공학, 농학, 경제 분야 등 전문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이다. 향후 우리나라 국가도서관 체제를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중심에서 과학기술, 의학, 농학 등 주제 분야별로 건립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상호협력 네트워크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1세기 첨단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도서관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교육, 학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도서관과 정보센터의 건립 및 활성화가 실용이다. 2008년도 도서관계 10대 뉴스에 과학기술, 의학, 농학 등 주제 분야별 국가도서관 건립 계획이 선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